

휴-口으로부터 칸트까지 因果問題의發展(續)

朴東一

四, 自由와因果問題

吾人은前節에서二律背反은二面으로現象世界에在한必然의因果律의第一原因을論함과共히他面으로物自體或은理體의世界에在한自由가成立할수잇는것을論하였다. 換言하면現象으로서의世界에對해서는因果連鎖를說하지안을수없으나現象아닌世界即物自體의世界에는因果律以外의法則形式이適用되는가답이다. 如斯히觀來하면世界全體는곧無原因하다고볼수잇고 그리하여無因은即自由이다. 故로世界를만약物自體라보면世界는自由라고말할수잇을것이다이觀點이만일現象世界에在한個個物에도드러맞는다면사람의心성과性格에도또經驗의이여서因果律에束縛되는것과叡智의이여서不然한即自由의部分과를區別할수가잇을것이다. 此事實은『實踐理性批判』中에詳說되어잇는것인데上來에서본것과같이임의『純粹理性批判』에서그端緒는開始되어잇는것이다.

그래實踐理性批判은意志의規定根據를論證한다. 故로純粹理性批判에서自由에依하여思惟可能이라고提出된因果概念의可實現性은實踐理性批判에서는自由에對하여提出되지안으면안된다. 故로吾人의理性은思辯理性外에오히려實踐理性이잇는데이實踐理性은道德的意志即積極의意味에在한自由를論證하는것이여서道德的의法則은實踐理性의構成을表現하는것이다. 故로道德的의法則은思辯理性의權威를表現할수없는自由의實現性을證明하는것이다. 故로吾人人間에는法則의支配하는感覺界와法則의自由가存在하는睿智界의二世界가展開한다. 故로그렇게하여思辯理性은다만感覺界의系列과制約을完成하는因果律의可思惟性은證明하지못하는것이지마는 實踐理性은思辯理性을超越하여叡智의存在의世界即自由의法則을證明한다. 故로이렇게해서칸트의思索의根據는道德學에잇는것을吾人은볼수가잇다.

여기에또吾人은實踐理性이原因概念을擴張하는것을본다. 勿論實踐理性이經驗의限界를超越하여因果律의概念을擴張하는것은아니다. 實踐理性은本體의原因이可能한것만을論하는것이다. 故로原因의概念을單純히實踐的目的에만使用한것이다. 故로그리함으로칸트는설령吾人의思惟는範疇를無制約的으로擴張하고 그

렇게하여作出된自由의理念은實踐理性에依하여實現되는것이지마는 原因의範疇는經驗의限界를超越해서는認識을仲介치안는것을固執하고있다. 故로吾人の理性은其自身の獨特한因果律을맨드는것이나 그러나理論的으로規定되지안는概念을使用한다그리하여이概念은道德的法則을實踐的으로使用할때에만얻어지는것이다. 竝아道德的法則은純粹意志의客觀性を證明하는것이다. 그리고意志라는概念가운데에는原因概念이包含되어있지만 純粹意志라는概念가운데에는原因概念은包含되어있지않다. 故로純粹意志의概念中에서는原因概念은自由에依하여規定되는것이고自然法則에依하여는規定되지안는다뺄아서自由意志의本質은理體的原因이다. 故로吾人이原因의概念을그本源에遡上하여야思惟하면一切의感覺的制約으로부터自由이여서何等現象에制限되지안는것은上來에본것임으로 吾人은自由意志의本質即理體的原因의概念을物自體에對한實踐的方面에關하여適用할수가잇는것이다.

그러면如何히하여야人間의叡智的特質인自由가遂히成立하는가를思考치안으면안된다. 모든時間的制約과發展의階段을超越하는叡智の世界에서만自由는成立한다. 吾人은五等自身을悟性界에屬하는叡智者로認識하는데 말하면吾人人間은吾人自身の意志의因果律을自由란理念下에서思惟하는것이다. 故로해야現象的自我에는自我自體가根據에存在하고 經驗的特性에는叡智的性質이根據에存在한다. 即叡智的特性은道德的法則이證明하는것과같이自己自身으로法則을주는것이여서 故로또權威或은自由다. 上來로說來한것과같이칸트의自由說에는感覺界와悟性界와의區別에依하여二元的世界觀이出現한다. 此二元觀은人生一般의哲學的思索이始作한以來로부터의思想인데 칸트는此를全體의理性論的哲學的認識中에表現하여 칸트의批判論은얼마나아니잇다가곳批判理性論을征服한다는것이다. 故로此二元觀이칸트에있어서成立하는限에뺄아서또칸트에在한感覺界와睿智界와는二新世界의轉向을包含한것은明瞭하다. 於是乎睿智界를感覺界의自然의本質로봄에依하여두가지分離된것이完成되고統一되는細音인데此가即칸트의哲學體系에在한根本思想의一임은다룰수없는事實이라고보아야한다.

여기에다달어吾人은칸트의論述한上來全體論證의結論에到達하는데 因果問題에對한칸트의所論을簡單히要約하여結末을매즈려한다. 칸트의所論은먼저因果의範疇와自由의理念을哲學體系中에取入한데서눈에띄인다. 칸트는經驗的類推에서第二類推即時間超越의原則을因果法則에從하여야證明하고 그리하여先驗의理念下에서는自由를證明하였다. 由此觀之하면因果性和自由性은理論的아울러實踐的으로칸트哲學體系의基礎다. 即因果範疇上에自然合法則性的概念은基礎가서고 先驗의理念인自由上에서吾人은活動 行爲 自發性概念의근거를 찾아

얻는 것이다. 다시 나아가서 사람은 자발적 생활의 根源—로 理體를 把握하고 그리고 無制約的으로 擴張된 因果의 範疇는 自由한 理念을 把握하는 것이다. 故로 二律背反論에서 必然性과 自由性과의 矛盾이 論證되었다. 此가 即 吾人의 制約의 連鎖에 對한 叡智의 存在인 無制約者 即 自由의 要素와 感性의 因果律에 對한 自發性을 發見한 것이다. 故로 自由의 理念은 因果範疇와 同樣으로 칸트學說의 根幹을 性하는 것이다.

以上으로 써 휴-口 으로부터 칸트에 至하기까지의 因果問題의 大體는 粗略■■하고 迂論曲折하나마 論述한 細音치고 이에 붓을 던진다.